



블랙큐브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쿡셀'

“늘어붙지 않고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프라이팬”

김진숙 블랙큐브 대표가 스테인리스를 소재로 한 프라이팬을 개발한 것은 2007년이었다. 기존 프라이팬 소재로 주로 쓰였던 알루미늄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알루미늄 프라이팬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본 게 계기였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했다. 환경호르몬이 나올 염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스테인리스의 물성이 강해 잘 벗겨지지 않아서다. 수명도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하지만 음식물이 잘 늘어붙는다는 단점이 있다. 열전도율이 낮아 예열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다. 김 대표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쿡셀’을 내놨다.

◆美 FDA 인증 도로 사용
쿡셀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스테인리스’ 3중 구조다. 열전도율이 알루미늄 프라이팬 못지않게 높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의 ‘고질병’인 음식이 늘어붙는 일은 적다. 프라이팬 안쪽 표면에 흠을 파 음식과 맞닿는 면적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코팅제는 흠 안쪽에만 채웠다. 날카로운 식기가 잘 닿지 않

프라이팬 안쪽에 흠 파내
음식과 맞닿는 면적 최소화
3중 구조로 소재 단점 극복
“자체 브랜드로 수출 나설 것”

아 코팅이 벗겨질 염려는 적다. 김 대표는 “코팅이 잘 긁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에 코팅제가 섞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코팅이 다소 벗겨져도 문제가 없게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증한 안전한 도료를 썼다. 음식 잔여물의 틈새 끼임 및 늘어붙음을 최소화했다. 작년 9월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인증식에서 주방용품(프라이팬) 부문 1위를 수상했다.

김 대표는 1998년 블랙큐브의 전신인 영호산업을 설립했다. 커피포트 주전자들 만들어 중동에 공급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다. 중동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이 모조리 취소됐다. 중동 사람 취향



김진숙 블랙큐브 대표가 열전도율을 높인 스테인리스 소재 프라이팬 '쿡셀'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한 커피포트 주전자가 주력이었다. 영호산업은 그해 겨울 문을 닫았다.

이듬해인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중성금속’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다. 인건비를 아끼려면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게 이득이란 판단이었다. 중동에 커피포트 주전자 수출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커피포트 주전자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특정 상품과 지역에만 의존해선 회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냄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쪽으로 제품을 확장했다.

◆특히 11개 ~ “수출 본격화”
시련은 2008년 또 찾아왔다. 독일 유명 주방용품 기업 WMF에 프라이팬 주전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을 추진한 게 문제였다. 아이디어와 공정을 검토하며 관심을 보였던 WMF는 블랙큐브(당시 중성금속)와 계약을 끝내 하지 않았다. 대신 유사 제품 OEM을 다른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블랙큐브-쿡셀 (031)315-1300 △비엘티주식회사-식품포장기 Lofaho (042)671-9501 △대호아이엔티-스마트호신기 마미콜 (055)715-2233 △코엔-휴대용 에너지 저장장치 파워뱅크 (031)476-1390

업체에 의뢰했다. 김 대표는 “기업 덩치가 너무 작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품을 개선했다. 당시 내놓은 ‘1세대’ 프라이팬 성능을 차례차례 끌어올렸다. 지금은 ‘6세대’ 프라이팬을 내놓을 만큼 성능이 향상됐다. 2015년 ‘쿡셀’이란 자체상표를 만든 뒤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OEM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식재산권에 신경 썼다. 지금까지 11개 특허를 등록했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쿡셀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해로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우상 기자 idoi@hankyung.com

‘국민책장’ 된 한샘 책장 150만개 판매 비결은...

한샘의 ‘샘 책장’이 누적 판매량 150만개를 돌파했다. 2009년 출시 후 8년 만이다. 국내에서 나온 책장 가운데 단연 최다 판매량이다. 지금까지 팔린 샘 책장을 쌓으면 63빌딩 1만개 높다. 이 책장 판매량은 2011년 20만개, 2014년 100만개를 차례로 넘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책장은 덩치 큰 가구지만 디자인은 덜 강조되는 게 특징이다. 가격이 낮으면서 디자인이 최우선 고려되는 다른 가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샘은 이 점을 최대한 파고들었다. 제품을 가격화했다. 제조 공정 중 사람 손이 최대한 덜 가도록 했다. 흰색 등 가장 무난한 세 가지 색상만 선택할 수 있게 해 제품 가짓수를 줄였다. 제조공정 대부분을 자동화했다. 판매는 한샘의 온라인쇼핑몰인 ‘한샘몰’을 통해서만 했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팔던 수수료를 줘야 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권장은 책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판매량이 늘자 한샘은 가격을 더



낮았다. 샘 책장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폭 120cm 5단 책장(사진)은 2010년 초 11만7000원이었다. 지금은 9만5000원이다.

책장이지만 책만 들어가지게 하지 않았다. 책장 칸에 ‘C’자, ‘U’ 형태의 선반을 끼워 넣으면 화분이나 문구류 등도 깔끔하게 넣을 수 있다. 책장에 꼭 맞는 바구니가 있어 장난감이나 아이들 옷도 넣을 수 있다. 한샘은 이런 ‘책장용품’도 별도로 판매 중이다.

저가 조립 가구를 파는 이케아와 달리 배송과 조립도 다 해줬다. 가구 조립에 서툰 주부가 아이들을 위해 주로 사기 때문이다. 저가 제품인데도 배송 등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았다. 한샘은 150만개 판매 돌파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가격을 최대 25% 더 낮추는 행사를 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스마트 청진기로 태아 건강 확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만찬 스마트사운드 대표

2011년 설립된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마트사운드는 작년 3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입점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한 상품’만 모아 놓은 ‘미래상점’ 코너였다.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이었다. 그해 6월에는 중국 제약사로부터 투자도 받았다. 후속 투자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 내 한 제약사와는 판매협상을 진행 중이다.



건강상태 등 다양한 건강지표가 나온다. 행동 요령까지도 알려준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등도 제시한다.

앱은 일반인을 위한 ‘스키피 하트’와 임산부용인 ‘스키피 마마’ 두 종류다. 임산부용 앱으로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반응

이 좋았던 것도 임산부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생아 수가 연 2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관련 시장이 크다. 올해는 1가구 1자녀 정책 완화로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만찬 스마트사운드 대표(사진)는 “20~30대가 새로운 기기를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임산부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장박동 소리의 규칙성을 분석하고 부정맥을 잡아내는 게 핵심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사운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도 시장을 확대 중이다. 작년 8월 일본 소프트뱅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소프트뱅크 온라인몰에 제품을 내놨다. 올해는 일본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한미약품, 주요 임원 교체 ... 계약파기 영향?

부사장 2명 퇴사

지난해 기술수출 계약 해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미약품이 부사장급 임원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김재식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폐암 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계약파기 நட장공사 등에

다른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미약품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웅 최고과학책임자(CMO·부사장)도 한미약품을 떠나 최근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주요 임원급 인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다”며 “김 전 부사장과 손 전 부사장

의 후임 인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두 사람 모두 올리타의 개발과 기술수출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던 만큼 올리타 기술수출 계약파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달 셀트리온 부사장 출신 조강희 부사장을 영입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한미약품에서 수출 계약과 관련한 법률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中企협동조합 정기총회 돌입 ... 이사장 172명 선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는 임종별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가 이달 중 열린다고 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00여개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172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48개,



지방·사업조합 119개)은 이번 총회에 경선이나 추대 형태로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다.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5년 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www.jobjoy.com

전국 대학 학과별 취업률 조사
우리 과의 진짜 취업률은

취업 탐구 '기업 vs 기업' ①
전자산업의 쌍두마차
삼성전자 · LG전자

2017.02.06-19
Vol.116

'노잼 인생'을 거부하는
개념 만렙
천재
꼴통들

ABC 우수인용매체
한국경제신문

가격 4,000원 / 정기구독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